

“OTT 할인에 통신비 절감까지?” 이통3사, 결합상품 경쟁 본격화

알뜰폰 확산에 이탈 가입자 확보
SKT, 'T 우주' 월 구독료 10% ↓
KT, 3~6만원대 '요고 시즌2' 선배
LGU+, 유튜브·넷플릭스 1만원대

이통3사(SKT·KT·LGU+)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할인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최근 가입자들이 저렴한 알뜰폰(MVNO)으로 이동하는 등 이통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자 OTT 혜택을 포함한 요금제를 내세워 고객 확보에 나선 것이다. 올초부터 OTT 요금인상이 이어지자 이용자 부담을 낮춰 고객을 잡아두겠다는 전략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6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0만 6588명(약 16%) 증가한 929만 6636명을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14.4%에서 16.5%로 2.1%p 늘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이통 3사 가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이통 3사의 가입자 수는 4692만 8134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0만 4477명 줄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OTT 결합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SKT 지난 6월부터 구독 플랫폼 'T 우주'에 넷플릭스·웨이브를 한꺼번에 구독해 월 구독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우주패스 넷플릭스'를 출시



LG유플러스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2종을 월 1만원대로 제공하는 '더블 스트리밍 연간권'을 출시했다. /LGU+

했다. 또 자사 5G 요금제에 따라 최대 1만 3500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연계 상품을 통해 좀 더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OTT 소비자는 여러 OTT를 함께 구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KT는 최근 OTT 구독 요금제 '요고 시즌2'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월 3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총 13개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월 5만 5000원까지의 11종 요금제는 티빙의 광고형 스탠다드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더 높은 요금제를 이용하면 OTT의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월 6만 1000원을 가입하면 티빙 '베이직'·'디즈니플러스 스탠다드'·'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서비스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월 6만 9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시 이 중 2가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을 택할 시 5000원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LG유플러스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2종을 월 1만원대로 제공하는 '더블 스트리밍 연간권'을 출시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 4900원)과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월 5500원)를 결합해 1년 약정으로 구독하면 둘을 따로 구독했을 때보다 4500원 저렴한 월 기준 1만 5900원에 제공한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엔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유독'의 구독 상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 멤버십 VIP 이상 등급 고객에게는 4000원 할인을 더 추가해 월 1만 19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혜택이 있다.

LG유플러스 안병경 구독사업담당은 "콘텐츠를 즐기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장 인기가 많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합해 할인을 제공하는 구독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유독을 통해 차별화된 구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KT, AI로 정신건강 관리 힘쓴다

초거대 AI 심리케어 사업 참여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정신건강을 케어할 수 있을 전망이다. KT는 헬스케어 사업을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역량 기반의 플랫폼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초거대 AI(인공지능)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KT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셀렉트스타 등 6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AI 엔지니어를 비롯해 뇌인지과학, 행동연구, 정신의학 등 각 분야의 의료 전문가와 함께 일선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예방·관리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KT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약 4년 동안 ▲실증 기반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개발·검증 ▲

대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대국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증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서 KT와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협력해 기능을 고도화한 AI 정신건강 플랫폼이 활용된다. 양 기관은 지난 1월부터 과기부 과제인 '비대면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에 공동 참여해 멀티모달(Multi Modal) 데이터와 연구 노하우를 확보해 왔다.

KT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한 '리얼 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a, 실사용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활동 콘텐츠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T 전략사업본부 유용규 전략사업기획본부장(상무)은 "KT는 이번 과기부·NIPA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CT와 플랫폼 전문성을 강화해 헬스케어 사업영역을 넓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방통위 “아이폰16 싸다고 속지마세요”

‘성지점’ 사기 광고 주의보

‘아이폰 16’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달 애플의 새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용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



아이폰16 프로 라인업으로 추정되는 시제품들의 모습. (왼쪽부터) 화이트·블랙·내추럴·데저트 티타늄 색상. /뉴시스

부했다.

김대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카카오 노사 ‘협상 결렬’... 단체행동 예고

노조, 경기지방노동위 조정신청
“회사 불성실한 태도에 논의 불가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쟁탈할 것”

카카오의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쇠신 동력 부족이 이어지면서 카카오 노조는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카카오톡 이용자 이탈과 IT 업계 최대 이슈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역량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마주한 현재, 기업 내부 결속력까지 약해지면서 카카오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동조합)는 지난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결렬 선언문을 게시한 바 있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8월 비윤리적 경영진 고문계약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처스

인수와 관련한 경영진의 배임횡령에 대해 제보를 접수했다.

노조 서승욱 지회장은 “작년 10월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회사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안건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지연시켰다”며 “이제 더 이상 회사와의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결렬을 선언했다”며 향후 단체행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쟁탈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교섭 결렬에 유감을 표하며 노조 측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크루유니언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왔으나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일부 안건으로 인해 결렬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카카오와 노조간 협상 결렬은 카카오 본사 차원에서 처음, 노조로서는 2022년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시도 후 2번째다.

카카오의 기업 내 구성원과 경영진 간 갈등은 해를 넘기며 깊어지는 상황이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전달하며 ▲기형적인 의사결정체계 ▲기준없는 평가제도 ▲배임·횡령 ▲인사검증 실패 ▲무분별한 스톱업선 ▲부실한 조직 관리 등 수많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인사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22일 카카오노조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와 배임, 횡령 사건에 연루된 임원들이 검찰에 기소된 직후 즉각적인 회사의 대처를 요구했다. 노조는 고문계약 해지와 해임을 공식 요구했으나 9월 5일 현재까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공동대표는 사임 이후 고문 계약 상태이며,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본부장도 여전히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카카오노조는 준법과신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오지 않는 사측의 안일함과 연이어 터지는 경영진의 도덕적 문제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추석 맞아 1260억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SKT 서비스용역 등 파트너사 대상

SK텔레콤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파트너사들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약 1260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 대상은 네트워크 공사 및 유지보수, 서비스용역 등을 담당하는 300여 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전국 250여 개 대리점 등이며 SKT와 SK브로드밴드가 함께 진행한다. SKT는 명절을 앞둔 파트너사들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파트너사들의 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SKT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매년 명절마다 대금 조기 지급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설날과 추석을 합쳐 총 254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게 된다.

한편, 2003년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한 SKT는 ‘동반성장펀드’, ‘대금지급바로’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오고 있다.

/구남영 기자